

【논문】

의식의 고차 이론과 오포상의 문제*

김효은

【주제분류】 심리철학, 지각철학

【주요어】 의식의 고차 이론, 일차이론, 강한 오포상, 현상/실재 구분, 보여짐, 자각, 본래성, 관계성, 변화맹

【요약문】 이 논문은 의식에 관한 고차 이론이 고차 표상의 지향적 대상이 부재하는 강한 오포상 사례를 설명가능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은 한 심적 상태가 그에 대한 고차 표상을 통해서 의식적이 된다고 설명한다. 강한 오포상 사례는 일차 표상의 내용이 고차적 반성을 통해 표상된 경험 내용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된다. 고차적 오포상의 사례는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고차 표상의 자연스런 귀결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고차 이론의 중요한 특징인 이행성 원리와 모순된다. 고차 이론은 전자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비판에 방어하는 반면, 일차 이론은 후자의 비일관성을 근거로 고차 이론이 의식 경험에 그럴듯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비판한다. 필자는 강한 오포상 문제의 핵심 논점이 “고차 표상이 의식 경험을 결정하는가”의 여부이며, 이를 개념적 정합성과 경험적 일관성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강한 오포상의 사례는 의식 경험의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차 이론이나 다른 종류의 이론으로 변형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고차적 오포상과 관련된 심리학적 실험과 그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에 대한 검토는 고차 이론의 설명이 상대적으로 경험적 정합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51-A00028). 초고에 대해 상세한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I. 서론

‘의식’을 주제로 한 논의는 최근 철학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제안되어왔다. 반면 이론들의 수만큼이나 사용되는 ‘의식’의 개념들 또한 다양해서 단일한 개념으로 이론들 간의 우위를 가리기가 어려워졌다.¹⁾ 하지만 여러 의식이론들을 나누는 기본적 구분은 있으며, 그것은 의식이 일차 상태에 있는가, 고차 상태에 있는가이다. ‘일차 상태’(first-order state)란 세계 안의 대상들이나 속성들을 표상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고차 상태’(higher-order state)란 일차 상태를 표상하는 상태를 뜻한다. 의식에 관한 고차이론(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은 일차 상태가 의식적 상태가 되려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생각’ 혹은 ‘사고’와 같은 이차적 혹은 고차적인 심적 표상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그 내용이 의식적으로 된다고 제안한다.²⁾ 이에 반해, 일차 이론(first-order theory of consciousness)은 일차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지각 상태가 현상적으로 의식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두 이론들 간의 우위를 다투는 여러 논점들 중 고차이론에 제기된 오폭상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문제는 ‘어떤 상태를 의식적이라 할 수 있는지’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의식’은 일상적으로는 명석판명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종(異種)적인 개념으로 서로 관련 없어

1) 의식을 주제로 한 철학 논의에서 사용되는 ‘의식’ 개념은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논쟁이 해결되는 수도 있다.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사 의식 개념들은 피조물 의식(creature consciousness), 상태 의식(state consciousness)이다. ‘피조물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라는 생물학적 특징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이 특징을 ‘의식적’이라 하는 것은 철학적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상태의식’은 의식 상태를 무의식적 상태와 구분해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2) 의식이 일종의 고차적 상태라는 생각의 철학적 기원은 17세기까지 올라간다. 근대 철학자 존 로크(1690/1987)는 “의식이란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지나가는 것에 대한 지각이다”라고 한다.

보이는 다수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의식 개념에 관한 여러 이론들 간에 합의된 바가 많지 않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고차 이론은 여러 종류의 고차 이론들 중 가장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에도 여전히 기본 형태로 여겨지는 버전인 로젠탈의 고차적 사고이론(Rosenthal 2005)³⁾을 대상으로 한다. 오표상의 여러 사례들 중 특히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강한 오표상’의 사례는 일차 표상의 내용이 고차적 반성을 통해 표상된 경험 내용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된다. 고차 표상이 대상으로 하는 일차 상태가 의식적이 되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부재하므로 일종의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고차적 오표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다음의 양면성은 고차 이론과 이를 비판하는 일차 이론 중 어느 한 입장을 쉽사리 옹호하기 어렵게 만든다. 고차적 오표상의 사례는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고차 표상의 자연스런 귀결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고차 이론의 중요한 특징인 이행성 원리와 모순된다. 고차 이론은 전자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비판에 방어하는 반면, 일차 이론은 후자의 비일관성을 근거로 고차 이론이 의식 경험에 그럴듯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비판한다. 두 입장은 각기 고차 표상의 역할과 일차 표상의 역할이 의식 경험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이러한 대조는 오표상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의식 관련 개념들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필자는 강한 오표상 문제의 핵심 논점은 “고차 표상이 의식 경험을 결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측면, 즉 개념적 정합성과 경험적 일관성의 측면에서 두 이론들의 입장을 차례대로 대변하며 검토할 것이다. 3절에서는 강한 오표상의 사례가 고차 이론을 딜레마에 처하게 한다는 점을, 그리고 4절에서는 경험적 사실과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논한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이론들이 ‘의식’ 개념뿐만 아니라 유사 의식 개념들인 ‘자각’,

3)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의 논의 대상은 ‘고차적 사고 이론’이다. 예컨대, 고차적 지각 이론이나 성향적 고차 이론과 같은 다른 버전의 고차 이론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오표상의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여짐’, ‘경험’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정하고 있는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지가 논의될 것이다. 이는 일견 의식 경험에 대한 논의를 다른 개념을 통해, 또다시 다른 개념을 통해 논의하는 순환적 논변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 개념만으로는 그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의식’ 개념의 상호참조적 특성을 오히려 잘 보여준다. 필자는 강한 오폭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차 이론의 여러 시도들은 개념적 측면에서 고차 이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고차 이론과 양립불가능한 다른 이론으로 변형될 수 밖에 없는 난점에 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고차 이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논의의 한계와 고차 이론의 전망 또한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의 2절에서는 고차이론에서 오폭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겠다.

II. 고차 이론의 구조와 강한 오폭상의 문제

고차 이론은 일차 이론의 설명의 한계를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일차 이론은 세계 안의 대상들이나 속성들을 표상하는 상태를 통해 의식 경험을 설명한다. 일차 이론의 약점은 일차 상태가 그에 대응하는 외부표상 내용에만 의존하므로 일차 상태의 내용인 의식 경험의 질적 특성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인과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반면 고차 이론은 일차 상태와 그에 대한 고차적 반성이라는 두 층위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이행성’ 관계를 통해서 그 일차 상태가 무의식적인 아닌 의식적 경험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전쟁 중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상처를 입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가 쉬는 동안 비로소 상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 이는 의식적 경험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고차적 상태를 통해 자각할 때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한 상태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통증을 느껴 소리

를 내거나 몸을 움크리는 행동 또한 하지 못할 것이고, 그 상태는 무의식적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고차 이론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이러한 ‘이행성’은 일차 표상의 내용이 고차 상태로 ‘이행’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의식 경험을 산출하는 두 층위 간의 관계는 단순히 고차 표상이 일차 표상의 내용을 거울로 비추듯이 반영한다는 의미 이상의 역할을 한다. 고차 표상이 의식 경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고차 상태가 지향적 대상으로 삼는 일차 표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기능적 역할을 담당한다.(Rosenthal 2005, 186-187; 203). 이렇게 두 차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설명 구조를 통해서, 고차 이론은 ‘의식적’ 상태가 합리적 선택이나 추리, 행동을 가능케 하는 데 필요한 항목임을 설명할 수 있다. 고차 표상이 일차 표상에 가지는 이러한 관계를 로젠탈은 ‘이행성 원리’(transitivity principle)라 부른다(Rosenthal 2000). 이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푸른 바다와 녹색 야자수 나무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런 감각들이 자동적으로 의식적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고차적 표상을 함(Rosenthal 1986, 345)으로써 그 감각 내용들이 의식적이 된다.

그런데 만약 고차 표상이 대상으로 하는 일차 상태의 내용이 고차 표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고차 표상을 통해 나오게 된 경험을 의식적 경험이라 할 수 있는가? 고차 이론이 상정하는 두 표상 차원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다음의 세 종류의 고차 표상들—참된 표상, 온건한 오표상, 강한 오표상—이 가능하다.

- ㄱ) 나는 빨간 장미를 보는 것에 대한 일차 상태를 가지며, 이에 대해 빨간색을 보는 것으로 나 자신을 자각하는 고차 상태를 통해서 빨간색 경험을 한다.
- ㄴ) 나는 노란 장미를 보는 것에 대한 일차 상태를 가지며, 이에 대해 빨간색을 보는 것으로 나 자신을 자각하는 고차 상태를 통해 빨간색 경험을 한다.
- ㄷ) 나는 어떤 것을 보는 일차 상태가 없으며, 이에 대해 빨간색을 보는 것으로 나 자신을 자각하는 고차 상태를 통해 빨간색 경험을 한다.

ㄱ)은 참된 표상으로 일반적인 의식 경험의 사례이며, ㄴ)은 온건한 오표상의 사례, 그리고 ㄷ)은 강한 오표상의 사례이다. 고차 이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사례들이 대상으로 하는 일차 표상의 내용은 상이하지만, 일차 표상들에 대한 고차적 반성을 통해 결국 ‘빨간색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위의 세 고차 표상들은 주관적으로 보면 구별불가능하다(Rosenthal 1997, 744)고 할 수 있다.

ㄴ)의 온건한 오표상의 사례는 일상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다. 빨간색 장미를 어둠이나 그늘과 같은 비표준적인 조명 상태에서 볼 경우 실제의 색깔과는 다른 색깔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온건한 종류의 오표상의 사례는 새롭게 제기되었다기보다는 고차 이론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이며, 일상적으로 종종 경험할 수 있다. 색깔과 같은 시각적 예 외에 다른 감각질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온건한 오표상의 사례를 볼 수 있다. 환상지 통증(phantom pain)은 예컨대 부상으로 팔을 절단하게 된 환자가 팔이 없는데도 없는 팔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이 사례는 일차 표상의 내용과 고차 표상의 내용에서 통증을 느끼는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로젠탈은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수정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 작전’으로 온건한 오표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Rosenthal 1986) 이 주장을 위해 로젠탈이 사용하는 예는 치과에서 경험하는 통증의 예이다. 치과에서 썩은 치아의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 마취를 하고 나서, 의사가 드릴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기 전 부드러운 거즈로 해당 부위를 닦아낼 때 환자들은 마취가 완벽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로 파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드릴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두려운 심리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면, 환자들의 통증은 사라졌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자가 어떤 고차적 사고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현상적 상태에 대하여 잘못 표상하는 경우가 있고, 수정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준다(Rosenthal 2002,

415). 로젠탈의 제안대로 온건한 오표상의 경우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오표상의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 수정가능성은 고차 이론에서 일차 표상과 고차 표상의 내용들 간의 이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온건한 오표상의 사례가 고차 이론 내에서 자연스럽게 포섭될 수 있다는 로젠탈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고차이론의 위와 같은 예외 작전이 ㄷ)과 같은 강한 오표상의 예에는 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 블락(Block 2011a, 425)은 고차적 반성을 통해 녹색 경험을 가질 때 실제로는 일차 상태의 대상으로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 사례를 제시한다. 즉, 고차 표상이 나타내는 일차적 심적 상태의 내용이 온건한 오표상의 사례처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어있는 사례이다. 이로부터 파생하는 난점은 앞서 고차 이론의 구조에서 일차 상태에 부여된 기능적 역할이 전혀 발휘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Byrne 1997, 111-112) 이행성의 원리는 고차 이론이 하나의 의식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차 표상과 고차 표상에 그 설명적 역할을 나누어서 말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강한 오표상의 사례는 고차 표상을 통해 의식의 상태로 만들 지향적 대상 자체가 없다. 고차 표상을 통해서 의식적이 될 일차 상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한 심적 상태를 의식적으 만드는지 설명하려는 고차 이론의 설명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일차 표상의 내용이 없다면 설명적 단순성의 원리에 따라 굳이 일차 표상과 고차 표상의 이중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고, 일차 표상과 고차 표상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되는 의식 경험을 강조했던 ‘이행성 원리’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고차 이론을 옹호하는 이들은 고차 이론에서 의식 경험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차 표상의 특징들을 내세워 고차이론의 구조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고차 표상의 현상적 지위를 내세워 강한 오표상의 문제를 해소하려 시도한다. 반면 일차 이론은 일차 표상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결 구도로부터, 필자는 오표

상의 문제가 “고차 표상이 의식 경험을 결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를 둘러싼 고차 이론과 일차 이론 간의 개념적 논의(3절)와, 경험적 논의(4절)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Ⅲ. 고차 표상은 의식 경험을 결정하는가: 개념적 정합성

1. 의식 경험에서 고차 표상의 역할

2절에서 보았듯 고차이론은 일상적인 사례들을 반영하는 꽤 직관적인 설명이다. 특히 강한 오폭상 사례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므로 고차 이론이 포섭하여 설명가능하려는 동기가 된다. 반면, 일차 이론이 이렇게 일상적인 사례를 고차 이론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의식 상태의 지향적 내용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태가 고차이론의 구조와 부조화스럽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고차 이론의 구조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로젠탈에 따르면, 일차 상태를 지향적 대상으로 하는 고차적 사고가 의식 경험이 되는데 있어, 어떤 심적 상태의 내용이 주관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으로 충분하지, 그 상태의 내용이 실제로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의식 경험을 가지려면 ‘현상(appearance)’으로 충분하며 ‘실재(reality)’와는 상응할 필요도 없다.(Rosenthal 2011, 432-3). 이는 앞서 고차 이론의 구조로 제시된 두 차원들이 의식 경험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차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역할은 하는 것은 일차 표상이 아니라 고차 표상이므로, “무엇이 일차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은 고차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이는 마치 용이 실재하지 않지만 ‘용이 불을 뿜는다’고 하면서 그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고차적 사고 표상을 통해 의식적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로젠탈이 ‘현상’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재’와 독립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은 철학사에서 현상-실재의 구분이 만연하기 때문에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의식의 문제에 관한 한, ‘현상’과 ‘실재’의 분명한 구분이 없다고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식적 통증의 고통스러움과 이에 대해 우리가 자각하는 상태는 동일하며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고차 상태가 일차 상태를 오표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보여짐, 즉 현상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의식’이란 현상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지는 측면을 의미하므로 자연스러운 추론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여짐의 측면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우리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심적 상태를 오표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거나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차 표상을 통해 의식적인 상태가 되는 바로 그 일차 상태가 비어 있다면 모순일 수 밖에 없다. 이 비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지향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고차 표상이 하나의 온전한 의식 경험일 수 있는’ 다음의 경험적 증거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의 증거가 강한 오표상이 의식적 상태인 실제 사례를 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고차 이론의 설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비어있는 고차 표상이 의식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고차 이론의 또다른 옹호자가 제시한 경험적 지지 근거인 찰스 본넷 증후군(Charles Bonnett syndrome)에서 볼 수 있다. 이 증후군을 앓는 이들은 뇌 영역 중 초기 시각 처리 영역(primary vision; V1)에 손상을 입었다. 초기 시각 처리 영역(이하, V1)은 외부 대상을 표상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V1의 활동은 외부 대상을 표상하는 일차 상태에 대응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것도 V1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외부 대상의 정보가 안구를 통해 들어오면 그 정보는 V1에서 운동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 영역으로 투

사되었다가 다시 V1으로 되먹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일련의 경로에 있는 한 부분만 손상되어도 움직임을 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V1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대상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찰스 본넷 증후군 환자들은 V1 영역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차 표상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체나 얼굴들을 볼 수 있다고 보고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증후를 보인다. 라우와 브라운(Lau & Brown forthcoming, 6-10)은 이러한 증후군의 사례를 일차적 상태의 내용이 비어 있지만 고차 표상을 통해서 의식 경험을 가지게 되는 실제의 예로 제시한다. 즉 고차 이론에 심각한 반례로 제시된 강한 오표상의 사례가 블락의 비판에서처럼 단순히 사고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일차 상태의 존재 여부와 관련없이 고차 표상만으로 의식 경험의 내용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는 고차 이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 사례는 강한 오표상 사례를 이용해서 고차 이론을 비판한 블락의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 주목할 만한 점은 어느 누구도 찰스 본넷 증후군 환자의 환시 사례에서 의식적 경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한 오표상의 현상은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강한 오표상 사례가 고차 이론에 문제가 되는 점은 그러한 상태가 의식적으로 경험되지 못한다는 점이 아니라, 고차 이론의 설명에서 핵심적인 문제인 “무엇이 그러한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드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차 이론의 기본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면, 일차 상태가 고차 상태의 지향적 대상이 되기만 하면 그 일차 상태는 의식적 상태가 된다. 그러면, 고차 이론의 이 설명을 찰스 본넷 증후군에 적용하기 앞서 먼저 강한 오표상의 일반적 사례에 간단히 적용해보자. 강한 오표상의 사례는 고차 상태를 통해서 의식적인 상태가 되는 그러한 일차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차 표상이 일차 상태를 의식적 상태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그 역할이 가능한 것은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일차 상태를 지향적 대상으로 함으로서만 가능하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

표상 사례들 중 마지막 사례인 강한 오표상의 경우, 고차 표상을 통해 얻어진 의식 상태는 ‘빨간색 의식 경험’이었다. 그런데 만약 일차 상태가 비어있다면, 그 상태를 지향적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고차 표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식적’ 상태가 만들어졌다 해도, 그 내용은 ‘빨간색’이 아니라 비어 있다고 해야 한다. 즉, 강한 오표상 사례는 고차 이론의 설명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두 층위 구조를 유지하지 못한다. 만약 일차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도 고차 표상만으로 의식 경험의 내용이 결정된다면, 굳이 두 층위 구조를 상정할 필요가 없고 고차 상태를 통한 표상이라는 한 층위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문제는 만약 그렇다면 이 설명이 더 이상 고차 이론이 아니라 일종의 일차 이론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앞서 소개된 찰스 본넷 증후군에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찰스 본넷 증후군을 겪는 이들은 자신들의 의식 경험에 대한 지향적 대상인 일차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고차 표상에 대한 지향적 대상은 일차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 의식 경험 자체일 수밖에 없다. 이 증후군을 겪는 이들이 경험하는 환시라는 심적 상태를 ‘무엇이’ 의식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피설명항 자체를 다시 설명항으로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난점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차 상태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한 층위로만 구성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차 이론이 일차 이론에 대적하는 유망한 이론으로서 제시된 출발점은 일차 이론이 의식적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동기가 되었다. 그런데, 찰스 본넷 증후군을 겪는 이들이 경험하는 환시라는 경험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고차적 상태 스스로일 수밖에 없다면, 일차 이론이 인과적 설명을 할 수 없었던 난점에 처했던 것과 동일한 바로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일차 이론은 일차 상태의 경험 내용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을 외부 대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난점이 있었고, 이를 고차 상태가 일차 상태를 지향적 대상으로 함으로

써 효과적으로 극복했다는 설명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찰스 본넷 증후군을 통해 ‘일차 상태가 없는 의식적인 고차 표상’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이려는 시도는 강한 오표상의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찰스 본넷 증후군을 겪는 이들이 대상 없는 고차적인 의식 경험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는 정작 중요한 설명 대상인 ‘무엇이 찰스 본넷 증후군의 환시 경험을 의식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추론될 수 없다. 따라서, 고차 이론이 강한 오표상 사례를 해결하려는 앞서의 시도는 일차이론의 고차이론에 대한 비판을 ‘강한 오표상의 사례가 의식적 상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하여 논점 회피가 되거나, 고차 이론에서의 일차 상태의 역할을 간과함으로써 구조상 일차 이론으로 회귀하게 되는 난점들을 가지게 된다.

이 절에서 필자는 ‘현상’과 ‘실재’ 중 전자의 측면에 의존하면서 그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고차 표상의 결정적 역할을 보이려는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평가는 현상의 측면이 강조된 실제 사례가 의식적인 고차적 오표상의 상태를 다른 방식으로 재기술(redescription)하는 것으로 그쳤고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의식 경험의 설명에 있어서 ‘보여짐’의 측면이 의식 경험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측면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로젠탈이 내세운 ‘현상’의 측면이 고차적 오표상의 상태가 어떻게 의식적이 되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여짐’, 즉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강한 오표상의 사례가 고차 이론 내에서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2. 통증 없는 통증 경험의 가능성

고차 이론이 ‘보여짐’의 현상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의식’이라는 심적 상태가 가진 특성을 잘 포착한 것이다. 예컨대 만약 내가 통증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그 통증

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만약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지만 실제 고문을 받든가, 아니면 고문하는 시늉만 하고 의식적으로는 실제 고문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실제 고문이라든가 그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선택할 것이다. 이 선택은 바로 로젠탈이 ‘실재’로부터 ‘현상’을 독립시켜 그것으로 고차적 표상의 의식적 상태를 설명하려 한 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보여짐’의 어떤 측면이 고차 표상으로 하여금 의식 경험의 내용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는가? ‘보여짐’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두 심적 상태를 비교해보자. 냉장고 문의 하얀색이 어둠 속에서 회색으로 ‘보인다’고 할 때 나는 그 냉장고 문의 색깔 특성과는 다르지만 본래의 하얀색이 나에게 보이는 모습, 즉 내 의식의 ‘현상적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냉장고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에는 그 냉장고 안이 실제로 비어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즉, ‘인지적 상태’를 의미한다. 현상적 의미로 사용된 ‘보여짐’은 후자와 달리 대상이 가진 속성이 어둠과 같은 조명 상태 등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다. 만약 동일한 조명 상태에서 두 대상들이 가진 본래의 색깔들이 상이하다면, 조명을 받아 나에게 보여지는 두 대상들의 색깔들도 상이하게 된다. 즉, 대상의 속성은 현상적 의미의 ‘보여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인지적 의미의 보여짐의 경우 대상의 상이한 속성은 ‘보여짐’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나의 생각 즉 인지적 상태만 영향을 준다. 블락은 고차 이론이 후자의 인지적 의미를 가정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전자의 의미도 사용하는 것처럼 애매하게 보여지므로, 고차 이론과 실제로는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Block 2011b, 444)고 비판한다. 사실, 인지적 의미의 ‘보여짐’은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으므로 ‘보여짐’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현상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이 애매함의 오류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고차 표상의 결정적 역할

을 옹호하려면 ‘보여짐의 상태가 어떻게 현상적 상태가 아닌 인지적 상태로 설명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로젠탈이 사용하는 예는 치통의 특수한 사례이다. 로젠탈(2002, 415)은 우리가 치과에서 마취를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받을 때의 아픔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제로는 통증과 관련없는 자극에도 격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예를 든다.⁴⁾ 일반적으로, 치료도구를 통해 치아 신경에 어떤 자극이 주어짐으로써 그에 대한 ‘자극 통증’(일차 상태)이 있으면, 통증이 생겨난다. 그런데, 로젠탈이 제시한 치통의 사례는 치아 신경을 건드림으로써 자극을 받아 통증을 가지게 되는 일차 상태가 아니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고차 상태를 통해 ‘고통’이라는 경험 상태가 만들어진다. 로젠탈은 이 상태를 ‘(일차 상태의) 통증 없이도 (고차적 반응을 통해) 통증의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는’(2002, 415)(괄호 안의 수식어는 필자가 이해를 위해 삽입함) 상태로 본다. 즉 지향의 대상인 일차 상태가 부재하더라도 대신 드릴 소리를 일차 상태로, 즉 지향적 대상으로 하여 “드릴 소리가 입 근처에서 들리니 마취한 부분에 작동하여 고통스러울 것이다”는 고차적 사고(thought)를 통해 통증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⁵⁾ 로젠탈은 이 사례를 통해 대상 없는 고차적 오표상이 일차 상태 없이도 의식적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이려 한다.

이 치통의 사례가 인지적 의미의 ‘고차 표상만으로 의식적 경험의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인지를 보기 위해, 먼저 로젠탈이 이 치통의 사례를 ‘통증 없이 통증의 의식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기술한 것이

4) 필자는 감각 차원의 pain을 ‘통증’으로, 정서적 차원의 suffering을 ‘고통’으로 번역한다. 두 용어는 혼용되어서는 안된다. ‘고통’이라는 단어는 신체의 자극의 차원보다는 불쾌한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심리상태까지 포괄한다. 예컨대, ‘심리적/신체적 고통’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만 ‘심리적 통증’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통증은 심리적 고통보다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에 더 적절하다.

5) 이러한 로젠탈의 인지 중심적 생각은 철학사적으로 데카르트의 합리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데카르트는 동물의 통증을 인지적 표상으로 이해했고, 이는 데카르트가 동물을 일종의 기계로 본 근거가 된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러한 상태가 가능하려면 ‘두려움을 통한 고차적 사고’가 우리가 보통 느끼는 통증을 산출할만큼 인과적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일차 상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차 상태가 존재했을 때와 동일한 통증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증을 단순히 둔탁한 자극이나 무감각 혹은 무의식적인 통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통증을 의식적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다. 로젠탈이 ‘고차 표상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일차 상태의 역할을 완전히 간과해서 고차 이론의 구조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고차 표상이 고차 표상과 일차 표상이 협동 작업을 한 것과 동일한 인과적 역할을 함으로써 의식적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고차 이론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차 상태의 부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증 없이 통증의 의식적 경험을 하는 것’에서 과연 그러한 역할이 가능한가? 이를 보기 위해, 통증의 두 가지 신경학적 경로를 간단히 알 필요가 있다.⁶⁾ 통증의 한 경로는 외측경로(lateral pathway)로서 외부 자극에 대해 느껴지는 자극의 위치나 강도를 파악하는 역할을, 또 다른 경로는 내측 경로(medial pathway)로서 외부 자극에 대해 당사자가 경험하는 견딜 수 없는 불쾌함 같은 정서를 느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⁷⁾ 우리가 보통 고통을 느낀다고 할 때에는 이 두 경로들이 함께 작용한다. 로젠탈이 제시한 강한 오표상의 사례인 치통은 조직 손상 없이도 이 두 경로에 대응하는 통증의 두 측면들을 모두 느끼는 사례이다. 로젠탈의 치통의 예는 고차 이론에서 ‘통증’과 ‘통증의 의식 경험’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생각은 통증의 의식 경험은 일반적인 통증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조직 손상이 없이도 발생하며, 그 역도 가능하다는 가정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통증 없는 통증 경험’의 가능성은 통증에 관한 일차

6) 이 두 경로는 신경생리학적으로(Hendry, S. 1999, 624), 그리고 최근의 뇌 영상(Singer et al. 2004)을 통해 확인되었다.

7) 물핀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두뇌 손상을 입으면 두 경로 중 내측 경로를 억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상태를 만드는 유일한 자극이 조직 손상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아닌 다른 경우를 통해 통증에 대한 의식 경험을 가지는 사례는 고차 표상을 통해서만 발생한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로젠탈의 ‘통증없는 통증의 의식 경험’의 이러한 가정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일차 상태의 통증을 만드는 것은 조직 손상 말고도 다른 경로로도 자극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의 블락의 예와 필자의 예이다. 블락은 어떤 사람이 끔찍한 신체 손상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체 손상을 당한 것이 아닌데도 ‘공감’(sympathy)⁸⁾이라는 고차적 상태를 통해서 고통의 상태(의식 경험)을 가지는 예를 제시한다. 이와 유사한 임상 사례 중 하나는, 아내의 임신 중 남편도 아내와 함께 입덧과 복통 증세를 경험하는 사례들이다. 이 예들은 로젠탈의 치통 사례에서처럼 일차 상태인 신경조직의 손상이나 임신 상태로의 변화 없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이다. 흥미로운 점은 통증의 의식 경험을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신체조직이 손상된 상태나 임신 상태가 아니면서 고차 상태를 통해 통증과 입덧을 경험했을 때, 대신 잇몸 가까이에 있는 대상에 대한 시각적 자극이나 아내의 임신 상태에 대한 자극을 통해 통증의 두 가지 신경경로가 실제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증의 의식 경험’은 조직 손상 없이 발생한다는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통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로젠탈의 설명대로 치과에서 느끼는 실체 없는 치통의 경우, 그 통증은 치아 신경조직을 건드려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증의 의식 경험’을 느낀다는 것은 일

8) 여기서 ‘공감’은 심리적인 의미로, 타인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을 ‘통해서’, 즉 고차적 상태를 통해서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이며, 공감 자체가 고통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로젠탈이 ‘보여짐’의 현상적 의미보다는 인지적 의미를 가정하였듯, ‘공감’ 또한 정서적 의미보다는 인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정서적 의미는 ‘공감’(sympathy)보다는 감정이입(empathy)에서 강조된다. 국내에서는 empathy를 공감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의 여지가 있으나 개념의 구분상 여기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번역한다. ‘공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차 이론이나 고차 이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공히 상술한 심리적 의미로 간주한다.

차 상태에 아무런 변화 없이 ‘통증’이라는 의식 경험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이 생각이 그럴듯하다면, 로젠탈의 가정과는 반대로 ‘통증의 의식 경험’은 ‘통증’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로젠탈의 치통의 사례는 그가 주장한 ‘통증 없이 통증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차 표상이 일차 상태 없이 의식 경험의 내용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증’과 ‘통증의 의식 경험’이 상호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는 두 입장에서 각기 유사한 예들을 통해 끊임없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그 결정은 그다지 쉽지 않다.

고차 이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로젠탈의 설명 외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강한 오표상의 통증 사례의 경우, 로젠탈의 예에서처럼 통증의 감각적 측면과 정서적 괴로움의 두 측면을 모두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측면만을 느낄 수 있는 사례도 ‘통증 없는 통증 경험’의 사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 사례는 온전한 의미의 통증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통증의 한 측면의 경험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로젠탈이 ‘보여짐’을 인지적 의미로 사용하므로 정서적 측면이 배제된 통증의 의미가 ‘통증 없는 통증 경험’의 사례로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라고 할 때 감각적 측면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정서적 측면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식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통증’의 경험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가려움이나 스치는 느낌 또한 감각적 측면 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고차 이론의 설명과 달리 일차 표상이 의식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고차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 강조가 ‘고차적인 자각 없이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며, 이는 하나의 통증이 어떻게 의식적 상태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2절에서 제시한 예들 중 하나인 전쟁터에서의 병사가 상처에 대해 느끼는 통증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아예 자각하지 않고서도 통증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다. 일차 이론을 옹호하는 이들도 ‘자각 없이 의식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은 ‘의식 경험은 어떤 자각을 동반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각’이라는 개념 자체는 ‘의식’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 개념으로, 일차 이론이나 고차 이론 어느 한 쪽에 더 유리하지 않다. ‘자각’은 고차 이론이 옹호하는 고차적 반성, 주목, 사고인 사례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현재 의식 논의에 있어서 ‘자각’에 대한 개념적 검토의 한계로 4절에서 경험적 검토와 함께 논의될 것이다.

이 절에서 필자는 강한 오폭상을 고차 이론에 흡수하려는 시도는 결국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두 선택이 고차 이론을 완전히 다른 이론으로 귀결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고차 이론은 의식 경험이 어떤 일차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자각할 때 생겨난다는 이행성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강한 오폭상의 사례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스스로 있는 것으로 자각하는 일차적 상태가 부재한다. 여기서 고차 이론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고차 상태가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자각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고차 이론의 가정 상 가능하지 않다. 고차적 반성을 통해 일차적 상태가 의식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지, 고차 상태 자체를 자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일차 상태가 아무런 기능적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고차 이론의 것이 아니라 일차 이론이나 일차 이론의 변형에 속하는 설명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차적 표상을 통한 경험 상태가 의식적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지는 그 고차 상태보다 더 높은 삼차 상태의 사고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차 상태의 사고가 이차 상태(고차 상태로 기술된)를 지향적 대상으로 하여 의식적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 선택은 고차 이론이 상징했던 고차 표상을 더 높은 층위의 상태가 지향적 대상으로 하는 더 낮은 차원의 상태로 만든다. 이 설명 구조는 삼차원적 이론이거나

아니면 일차 상태가 생략되었지만 기존의 고차 표상이 일차적 상태가 되는 구조의 이차 이론이 된다. 이는 본래 고차 이론이 의도했던 설명의 구조와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고차 표상에만 의존하여 강한 오표상 사례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일차 이론으로 환원되거나 또다른 형태의 새로운 이론이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3. 강한 오표상의 문제는 허수아비 논증인가?

앞서 두 이론들이 사용하는 의식 관련 개념들—현상, 보여짐—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전제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난점들을 보았다. 이 점은 이미 의식에 관한 논의를 하는 철학자들도 공유하고 있다. 이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블락은 토마스 네이글(1974)의 ‘의식적 상태에 있는 어떤 것’(something it’s like to be in a conscious state)을 주제 중립적인 의식 관련 개념으로 제안한다(Block 2011a, 424). 이 개념을 사용해 두 입장을 공정하게 평가해줄 수 있는가? 그런데, 블락과 로젠탈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뿐 그 함의는 다르게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무엇과 같음’은 여러 해석에 열려있다. 첫 번째 해석은 의식 상태를 기능적이고 지향적인 측면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본래적 속성으로 보는 것이다.⁹⁾ 본래적 속성이란 “그 자체가 있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속성을 가지는 것”(Lewis, D. 1983)을 의미한다. 예컨대 빨간색 토마토에 대한 실제 경험이 아니라 환상에 의해서 빨간색 토마토를 지각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험은 실제의 토마토를 지각할 때 가지는 빨간색 속성과 어떤 색 속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것도 표상하지 않는 심적 속성이다.¹⁰⁾ 반

9) 물리계의 특성과 대조적으로 현상적 감각질에 일반적으로 부여되어왔던 대표적 속성들은 대략 네 가지 정도이다. 감각질은 표현불가능(ineffable)하고, 본래적(intrinsic)이고, 사적(private)이고, 즉각적으로 접근가능(immediately accessible)하다. 이 중 특히 본래성과 주관성이 자연세계에 부합되기 어려운 것으로 손꼽힌다.

10) 블락(1996)은 이러한 본래적 속성을 심적 유액(mental latex)에 비유한다. “물감은 여러 가지 색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색상들에 공통적일 수

면, 실제의 토마토를 지각할 때 가지는 빨간색 속성은 이 본래적 속성과 더불어 지향적 속성도 함께 가진다. 본래적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상이 없는 빨간색 표상과 대상이 있는 빨간색 표상은 다른 속성들을 가지게 된다. 이점을 2절에서 제시되었던 세 종류의 고차 표상 사례들에 적용해보자. 지향적 대상이 없는 고차 표상에 의해 얻어진 의식 경험인 ㄷ)은 지향적 대상이 있는 올바른 표상에 의해 얻어진 의식 경험 ㄱ)과, 그리고 온건한 오표상 사례인 ㄴ)과는 의식 경험의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로젠탈이 세 종류의 고차 표상 사례가 모두 동일한 의식 경험을 가진다고 한 것에 대조되는 것이다. 강한 오표상의 사례로 고차 이론의 설명을 비판하는 블락을 비롯한 일차 이론 옹호자들은 의식적 경험을 기능적 속성과 구분되는 본래적 속성이라고 간주한다. 이 때문에 강한 오표상 사례는 다른 종류의 두 고차 표상 사례들과는 상이한 현상적 상태를 가지며, 따라서 고차 이론에 문제가 된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¹¹⁾ 이를 다음의 두 번째 해석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의식적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어떤 것’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은지에 초점을 맞추는 넓은 해석으로, 의식 경험의 본래적 속성을 가리킬 수도, 관계적 속성을 가리킬 수도 있다.(Weisberg 2011, 438-9) 그래서 의식 경험 자체에 내재하는 본래적 속성보다는 그를 포함한 기능적이고 지향적인 측면과 관련된 관계적 속성들을 포함하는 해석이다. 이는 로젠탈이 고차 표상의 ‘보여짐’의 측면들 중 인지적 방식으로 의식 경험의 내용이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관적이다. 관계적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본래적 속성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유액이다. ... 유액은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는다.”(Block 1996, 28)

- 11) 익명의 한 심사위원은 이 점에 대하여 한 입장이 외재주의를 받아들이는지, 내재주의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외재주의를 가정한다면 세 경우의 표상 내용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로젠탈이 세 표상 사례가 모두 동일한 의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주의를 가정한다는 점이다. 이 점 또한 논문 내용의 좋은 분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만 지면 제한 상 다음 기회에 논하겠다.

이외의 지향적, 기능적 속성을 고려하므로 고차 표상의 지향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차적 반성의 인지적 상태—예컨대 주의를 기울임, 두려움, 공감, 환상 등—의 지향적 태도에 따라서 의식 경험이 생겨난다. 따라서, 고차 표상의 지향적 대상이 존재하는 올바른 표상의 사례 ㄱ)이나 온건한 오표상의 사례 ㄴ), 그리고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강한 오표상의 사례 ㄷ)에 있어서 의식 경험의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바로 로젠탈이 주장한 바이다. 즉, 관계적 속성으로 보는 해석을 따르자면, 지향적 대상인 일차 상태 없이도 고차 표상만으로 의식 경험의 내용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는 로젠탈의 주장은 그 해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추론된다.

앞서 필자는 온건한 오표상과는 달리 강한 오표상의 경우 이행성의 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로젠탈의 고차 이론이 의식 경험의 본성에 관해 관계적 속성을 가정하고 있다면 로젠탈이 강한 오표상의 사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고차 이론 내에서는 자연스런 귀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차 이론의 옹호자들이 강한 오표상의 사례를 들어 고차 이론의 의식에 대한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식에 관해 완전히 다른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고차 이론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강한 오표상의 사례를 통해 고차 이론을 비판한 것은 의식 경험이 관계적 속성이 아니라 본래적 속성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일 수 있다. 강한 오표상 사례로 고차 이론을 비판하는 것은 허수아비 논증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모든 설명이나 이론들은 어떤 특정한 가정들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경쟁하는 여러 이론들이 서로 한 주제에 대해 비판하고 논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들에 전제된 가정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가이다. 그렇다면 위의 두 해석들 중 어느 쪽이 의식의 중요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가? 의식을 본래적 속성으로 특징짓는가, 관계적 속성으로 특징짓는가는 비단 이 논문의 주제 뿐만 아니라 여러 의식 이론들 간에 논쟁되어왔던 미해결의 문제이다.

이제 증명의 부담은 거꾸로 일차 이론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블락이 의식을 본래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을 전제하고서도 강한 오표상 사례가 고차 이론에 문제가 된다는 비판을 정당하게 주장하려면, 의식에 대한 본래적 속성 개념이 관계적 속성 개념보다 의식의 본성을 더 잘 드러낸다는 점을 별도로 논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블락은 일차 이론은 의식을 ‘본래적인 것’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Block 2011b, 446) 중요한 점은, 이는 일차 이론이 의식의 본성에 있어 관계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고차 이론의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혼동하지 않아야 할 점은 ‘의식’이 ‘관계적’이라는 것은 의식을 그 심적 상태를 가진 주체의 외부 대상과 관련시켜 동일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속성들은 외부의 대상과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해석할 경우 모든 속성이 비본래적인 것이 될 것 (Davidson 1994)이기 때문이다. 즉, ‘의식이 외부의 요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진다’는 것과 ‘감각질이 본래적’이라는 생각은 양립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일차 이론이 염두에 두는 의식 개념이다.

이러한 양립가능성은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이 완전히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두 이론 간의 갑론을박이 허수아비 논증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본 것처럼 고차 이론가 로젠탈은 “통증에 대한 고차적 사고, 즉 일종의 자각 없이 통증의 의식 경험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일차 이론가 블락(Block 2011b, 446)은 “통증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이도 통증이 문제가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의식 경험은 그에 대한 어떤 종류의 자각을 필요로 한다”는 명제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두 입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점은 “(고차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드는 자각의 한 예인) 주의와 같은 고차 표상을 넘어선 의식 경험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차 이론이 강한 오표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는 관련된

의식 개념들이 어떤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의식 경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지에 달려있다. 이는 앞 절들에서 보았듯, ‘현상’이나 ‘보여짐’, 그리고 ‘주관적 의식 상태’와 같은 유사 의식 개념들을 통해서 재검토되었지만 두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상이한 가정들과 개념적 비정합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검토를 통해 두 이론들 간의 대치 상황이 드러난 것은 ‘의식’에 대한 전통 철학의 방법이 의존하는 일인칭적 접근을 통한 검토의 성과임과 동시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보충할 수 있는 삼인칭적 접근을 통한 자료를 통해 고차적 오표상의 문제가 의식 경험을 결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IV. 고차 표상은 의식 경험의 내용을 결정하는가: 경험적 정합성

의식 경험의 내용이 고차 표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지의 문제를 어느 한 쪽의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서 상대적으로 동등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삼인칭적 접근을 통한 방법이다. 앞 절에서 검토하였듯, 고차 이론은 오표상의 문제에 대해 ‘보여지는 것, 특히 고차 표상만이 의식 경험의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함으로써, 고차 표상의 대상이 없거나 그 대상이 상이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주의라는 고차적 자각 없이는 의식 경험이 없다’는 고차 이론의 주장은 이전 절에서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식적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이 시야의 중앙에 있어서 쉽게 자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고차적 표상을 하지 않는다면 의식 경험의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생각은 일찍이 심리철학자 드레츠키의 사고실험(Dretske 1993, 125-128)에서 다음과 같이 시험되었다. 두 그림에는 모두 열 그루의

나무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한 쪽의 그림에는 한 그루가 빠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그림들을 의식적으로 보면서도 두 그림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예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많이 인용되어왔으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각자들이 그러한지, 설정을 바꾼다면 그러한 현상이 달라질지와 같은 실제 상황에 대한 후속 사고실험은 행해지기 어려웠다.

최근 등장한 인지심리학의 ‘변화맹’(change blindness) 현상과 관련한 실험은 드레츠키의 사고실험과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다 일상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고차 표상이 의식 경험의 내용을 결정하는가’의 경험적 정합성을 시험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고차 이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이 ‘변화맹’ 실험을 ‘고차적 표상이 의식 경험을 결정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 자료로 사용한다. 변화맹 실험은 두 장면들에 여러 번에 걸쳐서 변화들을 주면서 피험자들이 그 변화들을 알아차리는지를 알아본다. 레빈과 사이먼의 변화맹 실험(Levin & Simons 1997)에서, 피험자들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시청한다. 연속되는 장면들은 각기 이전 장면과는 다른 변화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험자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심지어 나중에 변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운 후에 재실험을 하였을 때에도 피험자들이 장면 간 변화를 알아차리는 확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하여, 장면들 간에 나타나는 변화는 피험자의 시야의 중앙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대상들이어서 변화를 자각하기 어려웠고, 이는 일반적인 실수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험자의 시야 중앙에 놓인 대상에 변화를 주는 후속 실험에서도 피험자들은 그에 대한 변화를 자각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게다가 시야의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화면 속 등장인물들의 옷 색깔에 대해서도 피험자의 약 삼분의 이가 그 변화를 탐지하지 못하였다.¹²⁾ 이러한 결과는 ‘주의’와 같

12) 심지어 나중에 변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운 후 재실험을 하였을 때에도 피험자들이 장면 간 변화를 알아차리는 확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장면에 나타나는 변화가 주변적이어서 그렇다고 반박

은 고차적인 자각의 상태가 개입되어야만 의식 경험이 발생한다는 고차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고차 이론의 이러한 해석은 ‘부주의맹(Inattentional blindness)’이라고 칭해진 또다른 실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약 일분간 지속되는 대학생들의 농구 게임 비디오를 보면서 검은 옷을 입은 팀과 하얀 옷을 입은 팀 중 한 팀의 공 패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몇 번인지를 세도록 지시 받는다. 농구 공이 선수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동안, 갑작스레 검은 고릴라 의복을 입은 사람이 대학생들 사이로 걸어간다. 이 때 몇 번 공이 건네지는 지에 집중하여 셈을 하고 있는 피험자들 중 약 반 정도는 검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³⁾ 피험자들은 공의 패스의 수를 세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고릴라 의복을 입은 사람의 모양보다는 옷의 색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갑작스레 등장한 검은 고릴라 의복을 선수들 중 한 팀의 구성원의 옷으로 지각했을 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과의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 실험은 주의라는 요소가 의식 경험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고차 표상이 의식 경험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고차 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데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면 경험적 정합성까지 갖춘 것처럼 보이는 고차 이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해야 하는가? 중요한 점은 경험적 자료는 쉽사리 어느 특정 이론이나 설명에 대한 확증의 증거가 되기 어려우며, 항상 그에 대한 여러 해석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것이다. 변화맹과 부주의맹 실험에 대한 고차 이론의 설명과는 달리, 블락(Block 2011b, 445-447)은 의식적 경험은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고차적인 생각 혹은 지각을 함축하는 것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두 장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험자의 시야 중앙에 놓인 대상에 변화를 주는 후속 실험에서도 피험자들은 그에 대한 변화를 자각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13) 이러한 실험은 비디오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에서 여러 가지 버전의 실험들을 볼 수 있다. http://viscog.beckman.uiuc.edu/djs_lab/demos.html.

면 사이의 변화를 본 적이 없다”는 피험자의 보고에 대하여, “(고차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라는 고차 이론의 설명도 가능하지만, ‘보았지만 기억 용량의 제한으로 망각되어서’라는 설명 또한 가능하다. 위의 실험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식 경험도 없다’는 고차 이론의 해석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의식 경험이 가능하다’는 일차 이론의 해석 모두 가능하다.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가? 이는 강한 오표상의 사례가 과연 의식 경험의 설명에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논의이다.

해석들 간의 우위를 가리기려면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인칭적 자료인 피험자의 보고¹⁴⁾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삼인칭적 자료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야에 있는 어떤 대상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동안 그 대상들의 정보가 의식 경험에 대응하는 뇌신경에 물리적으로 기록되는지의 삼인칭적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 ‘물리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대상의 특징들이 그 경험에 대응하는 신경 상태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고차 이론이 오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차 상태가 곧 의식 경험이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표상의 문제는 고차 이론에 있어서 해결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맥과 락(Mack & Rock 1998)의 실험에서, 한 무리의 피험자들은 어떤 다른 작업에 주의를 집중할 동안에 화면을 가로지르는 ‘flake’라고 쓰여진 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상의 특징이 자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기까지의 결과는 고차 이론의 ‘고차적 주의 없이는 의식도 없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14) 일인칭적 보고는 주로 피험자의 내성(introspection)에 의존한다. 각 마음은 자신에게 명석 판명한 특성을 가진다는 데카르트의 전통은 꽤 오랫동안 철학과 심리학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의식에 관한 일인칭적 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한 많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한 예로, 눈을 가리운 피험자가 그의 목에 칼이 지금 대어진다는 것을 듣는 경우, 얼음 조각이 대어질 때조차도 통증을 느끼게끔 된다는 사례가 있다. 이는 일인칭적 자료가 오류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험의 후속 실험은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실험자들에게 다수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어떤 글자를 보았는지를 물었을 때 대다수가 ‘snow-flake’라고 쓰여진 그림을 다른 그림보다 더 많은 확률로 선택하였다. 이 선택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 즉 고차적 반성을 통해 대상을 자각할 수 있는 ‘이외의’ 방식으로 피험자가 그 대상을 자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차 이론에 따르면, 위 실험의 피험자들이 대상을 자각할 수 있는 경우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즉 고차적 반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후속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고차 표상 없이도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가능한 반박은 피험자들의 보고는 일인칭적 자료로서 피험자의 내성에 의존하며 주관적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그 내성적 보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신경학적 증거가 제시되었다. 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 이미 피험자의 눈동자는 그 대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앞서 ‘snow-flake’에 대한 선택이라는 일인칭적 자료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snow-flake”를 선택할 때 피험자에 대한 뇌 자기공명 영상(fMRI)을 검토한 결과, 뇌의 관련된 특정 영역에서 혈류 움직임이 발견되었다.(Rees et al. 1999) 이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때 경험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문자 정보에 대한 지각이 뇌의 해당 부위를 발화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상이 자각되는 방식이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래서 고차 이론의 “고차적 주의 없이는 의식 경험도 없다”는 입장보다는 일차 이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의식 경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즉, 고차 표상을 통하지 않고도 의식 경험이 가능하다.

고차 이론이 오표상의 문제, 특히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강한 오표상의 사례를 방어하는 전략은 고차 표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

하는 것이었다. 고차 이론이 의식을 설명하는 구조는 일차 표상과 고차 표상의 협동작업이라고 할지라도, 의식 경험의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고차 표상이 전적으로 맡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서 제시되었던 빨간색 경험에 관한 올바른 표상이나 온건한 오표상, 그리고 강한 오표상 모두 그 경험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절에서 검토된 고차표상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정합성은—적어도 현재까지는—고차 표상 뿐만 아니라 일차 표상 또한 의식 경험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필자는 의식 경험에 있어 일차 표상의 역할을 드러낸 위의 해석이, 고차 이론과는 의식 경험에 관하여 완전히 다른 귀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절에서 언급된 ‘일차 표상은 다르고, 고차 표상은 동일한’ 빨간색 경험들 ㄱ), ㄴ), ㄷ)은—고차 이론의 설명과는 달리—‘빨간색’이란 언어적 기술만 같을 뿐 상이한 의식 경험을 구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더 나아가, ㄴ) 온건한 오표상과 ㄷ) 강한 오표상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식 경험을 가지게 된다. 3절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ㄴ) 온건한 오표상의 경우, 일차 상태의 조건들을 비교하여 의식 경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온건한 오표상의 경험 내용은 올바른 표상의 경험 내용으로 조정 가능하다. 대조적으로, ㄷ) 강한 오표상의 경우, 비교하여 경험 내용을 수정할 일차 상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 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일차 표상이 의식 경험의 내용에 기여하는 역할이 분명하다면, 강한 오표상의 의식 경험은 온건한 오표상의 의식 경험과 그 내용에서 질적으로 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강한 오표상의 사례는 고차 이론의 설명 안에서 포섭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경험 내용의 수정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온건한 오표상은 강한 오표상보다는 올바른 오표상의 사례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건한 오표상의 사례는 고차 이론에 포섭될 수 있으나 강한 오표상의 사례는 고차 이론에 심각한 반례가 된다. 이는 고차 이론이 오표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차 표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오표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의식적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도 부적합한 설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절에서 주로 살펴본 경험적 정합성의 검토에 대하여, 어떤 한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경험적으로 더 잘 부합한다는 사실이 곧 그 가설이 좋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 정합성은 한 이론의 그럴듯함을 평가하는 데 최소한의 조건으로 여겨질 것이고, 실제의 사례들과 부합하지 않는 이론은 설득력을 전혀 가지지 못할 것이다.

V. 맺음말

일상적인 의식 경험은 대상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참된 표상의 사례와 함께 오표상의 사례들도 포괄한다. 우리가 그 사례들을 오표상으로 아는 경우는 그것들을 바른 표상인 경우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의 일차 상태의 내용이 그에 대한 반성적 상태를 통해 얻어진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수정할 수 있다. 본론에서 제시된 온건한 오표상의 경우, 고차 표상의 경험 내용을 일차 표상의 여러 조건들을 통해 비교해봄으로써 두 차원 간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었다. 이 점은 고차 이론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인 ‘이행성 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상식적인 의식 경험의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의식에 관한 고차 이론의 강점이다. 일차 이론이 고차 이론의 문제점으로 온건한 오표상의 사례가 아닌 강한 오표상의 사례를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행성 원리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차 이론은 고차 표상의 여러 사례들을 모두 고차적 지향적 상태의 자연스런 귀결로 간주하는 여러 논변을 제시함으로써 방어하려 한다. 그러나 필자는 강한 오표상의 사례의 경우 의식적 경험의 상태가 되기 위해 일차 이론이나 다른 종류의 이론으로 변형되므로 고차 이론의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고차적 오표상과 관련된 심리학 실험과 그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에 대한 검토는 고차 이론의 설명이 상대적으로 경험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고차 이론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된 강한 오표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차 표상이 의식 경험을 구성한다’는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식 개념과 유사 의식 개념의 특정 내용을 가정하고 있음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고차 이론은 오표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차 표상은 의식 경험을 구성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다소 강한 주장을 한다. 고차 상태가 의식의 내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반례에 대해서는 다시 그 고차 상태의 ‘현상’적 측면을 과감하게 ‘실재’와 독립시킴으로써, 또 그 다음에는 현상적 측면의 인지적 해석과 관계적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고차 이론을 오표상이라는 누명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앞 절들에서 제시되었듯이 현상적 의식 상태의 실제 예들은 고차 이론이 구분하고 제한하는 개념의 내용으로 설명되지 못한다. 이는 일차 이론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차이론의 설명이 직관적 설득력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서두에서 밝혔든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관에 의존하는 방법은 그럴듯한 설명의 출발점일 뿐, 때론 새로운 발견들이 기존의 직관을 뒤집어 온 철학의 역사에서 보듯 좋은 설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직관에 의거한 개념적 논의와 경험적 논거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상’, ‘보여짐’과 같은 유사 의식적 개념의 특정 관점에 의존하는 것은 고차 이론이 오표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일견 보이지만, 결국 의식 경험의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런 어려움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고차 이론이 오표상을 문제로 보지 않는 데에는 현상적 의식 상태가 ‘인지적’이거나 ‘기능적’인 관계적 속성으로 의식을 제한하여 설명하려 한 데 있다. 이런 점은 의식의 내용이 ‘주어’와 같은 고차 표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국한한 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 정합성의 검토를 통해, 의식 경험은 고차적 주의의 상태가 결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차적 주의가 없는 상태에 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의식의 본성에 대한 좋은 설명은 어떤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직관적 설득력이나 개념의 비모순성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우며, 이를 완전하게 파악하기에는 고차 이론과 일차 이론 두 입장들이 가정하는 유사 의식 개념들의 내포가 아직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까지 제시된 고차 이론은 주로 고차적 ‘사고’ 이론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본 논문도 그에 국한하여 논하였으므로, 다른 종류의 고차 이론이 오표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2012. 06. 13.
심사완료일: 2012. 08. 25.
게재확정일: 2012. 08. 27.

김효은
뉴욕대 철학과 객원학자

참고문헌

- Block, N., "On a confusion about a function of consciousness",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8:2, 1995, pp.227-247.
- _____, "Mental Paint and Mental Latex", *Philosophical Issues* 7, 1996, pp.19-49.
- _____, "The higher order approach to consciousness is defunct", *Analysis*, 71:3, 2011a, pp.419-431.
- _____, "Response to Rosenthal and Weisberg", *Analysis* 71:3, 2011b, pp.443-448.
- Byrne, A., "Some like it HOT: consciousness and higher-order thoughts", *Philosophical Studies* 86, 1997. pp.103-129.
- Davidson, D., "Knowing one's own mind". In Q. Cassam (Ed.) *Self-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Drestske, F., "Conscious Experience", *Mind* 102: 406, 1993, pp.263-283.
- Hendry, S., "Pain", In R. A. Wilson & F. C. Keil (Eds.), *MIT encyclopedia of the cognitive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1999.
- Kriegel, U., "Consciousness as Intransitive self-consciousness: two views and an argument",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3:1, 2003, pp.103-132.
- Lau, H. & Brown, R.(forthcoming) The Emperor's New Phenomenology? The Empirical Case for Conscious Experience without First-Order Representations, in a *Festschrift for Ned Block* edited by Adam Pautz and Daniel Stoljar (eds.) MIT Press.
- Levin, D. T. & Simons, D. J., "Failure to detect changes to attended objects in motion picture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4:4, 1997, pp.501-506.
- Lewis, D., "Extrinsic Properties", *Philosophical Studies*, 44:2, 1983,

pp.197-200.

- Mack, A. & I. Rock, *Inattentional Blindness*. Cambridge, MA: MIT Press, 1998.
- Nagel, T., “What is it like to be a bat?”, *The Philosophical Review* 83:4, 1974, pp.435-450.
- Neander, K., “The division of phenomenal labor: a problem for representational theories of consciousness”, In Tomberlin (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12: Language, mind and ontology*, Blackwell Publishers, 1998, pp.411-434.
- Rosenthal, D. M., “Two concepts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Studies* 49:3, 1986, pp.329-359.
- _____, “A theory of consciousness”, In Block et al. (eds) *The nature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debates*, The MIT Press, 1997, pp.729-753.
- _____, “How many kinds of consciousnes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1:4, 2002, pp.653-665.
- _____, “Varieties of higher order theory”, In *Higher-Order Theories of Consciousness*, ed. R. Gennaro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ers, 2004, pp.19-44.
- _____, *Consciousness and Mind*. Oxford: Clarendon Press, 2005.
- Singer, T., Seymour, B., O’Doherty, J. et al., “Empathy for pain involves the affective but not sensory components of pain”, *Science* 303, 2004, pp.1157-1162.
- Weisberg, J., “Abusing the notion of what-it’s-like-ness: a response to Block”, *Analysis* 71:3, 2011, pp.438-443.
- Wolfe, J., “Inattentional amnesia”, In V. Coltheart (Ed.), *Fleeting Memories: Cognition of Brief Visual Stimuli* (pp.71-94). Cambridge, MA: MIT Press, 1999.

ABSTRACT

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 and the Problem of Misrepresentation

Kim, Hyo-Eun

The possibility of radical higher-order misrepresentation has been raised by Block as an important counter-case to the higher-order thought theory of consciousness. The problem of misrepresentation helps us to re-examine traditional questions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appearance and reality, the two interpretations of ‘seeming’, and the intrinsic and the relational notions of ‘what it is like to be a conscious state.’ I argue that Rosenthal’s and Weisberg’s attempts to account for the case of higher-order misrepresentation are not successful, because the higher order thought theory faces a dilemma between a variety of the first-order theory and a version of the third-order theory. Furthermore, evidence from psychological experiments on change blindness and inattentional blindness reveals that first-order representation as well as second-order represent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conscious experience.

Keywords: 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 radical misrepresentation, appearance / reality, seeming, awareness, intrinsic / relational property, change blindness